경기도 어린이 신문

내가 그린 꿈

모바일 바로가기

오디오클릭 바로가기

경기도가 발행하는 <내가 그린 꿈>은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 및 교사에게 1부씩 배포됩니다. Vol.7 | 2021년 가을

〈내가 그린 꿈〉 표지는 어린이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가 그린 꿈〉 블로그(blog.naver.com/reporter_gg)를 참고하세요.

로봇과 함께 맞는 가을

김다은 용인백현초 6

로봇공학자 이원형

사람의 곁에서 사회를 돕는 로봇을 만듭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싶은 이원형 교수님을 만나 로봇공학자의 직업에 대해 알아봤어요.

- 서울과학고 졸업
- 카이스트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석·박사 졸업
-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박사 후 연구원 근무
- 2019 IFAC WROCO 최우수 논문상
- 소셜 로봇, 원격 조종 지원 로봇 분야 연구
- 한동대학교 전산전자공학부 조교수

Q. 로봇공학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궁금해요.

로봇공학자는 로봇의 형태를 디자인하고,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모터와 관절을 표현하는 부품, 움직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만들어내는 직업이에요. 특히 인공지능 로봇은 카메라로 사물을 보며 주변 환경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 스피커를 달아 사람의 음성을 알아듣고 대답도 하고요. 로봇공학자는 로봇이 이러한 데이터를 영상과 음성으로 인식하고, 인공지능으로 학습하도록 한답니다. 요즘은 로봇의 소재로 푹신하고 부드러운 소재를 쓰려고 하는 편이에요. 잘 접히고 말랑말랑한 소재를 쓰면 사람들이 더 친숙하게 느끼고 좋아하거든요.

Q.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신하고, SF 영화에서처럼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는 위험한 일이 벌어질까봐 걱정되기도 하거든요.

지금은 사람이 일일이 데이터를 보고, 오염된 데이터를 삭제하고 거르는 수밖에 없어요. 윤리적 가치는 사람들의 생각과 사회적 관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언젠가는 인공지능이 알아서 나쁜 데이터를 거르는 순간이 올 거예요. 친구들이 살아갈 미래는 로봇을 훨씬 많이 이용하는 시대가 될 테니, 기술을 막연하게 무서워하기보다는 기술의 발달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Q. 그렇다면 로봇을 어떻게 선한 마음으로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로봇 개발의 첫걸음이겠네요.

맞습니다. 로봇을 어느 분야에서 적용하고 싶은지부터 생각해보는 자세를 가져야 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기술과 방법을 활용할지 고민하면서 여러 번 반복해 시도하고, 실패도 해보고요. 그리고 만들어진 로봇은 필요한 장소에서 실제로 작동해보고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피드백을 받는 거죠. 예를 들어 부모님이 농부여서 농업을 도울 수 있는 로봇을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논두렁에 빠지지 않는 바퀴를 달고, 시시각각 바뀌는 날씨에 견딜 수 있는 소재여야 하니 기계 소재를 배워야겠죠?

Q. 로봇공학자가 되려면 어떤 과목을 잘해야 할까요?

이 직업은 수학을 좋아하고 논리적인 사람이라면 잘 맞을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조립하거나 만드는 걸 좋아해서 발명가를 꿈꾸었어요. 내가 만드는 것이 사람의 일상 속에서 도움이 되기를 바랐고요. 로봇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한 것은 대학원에 진학한 후였답니다. 대학교에서 기계공학과나 인공지능학과, 전자전기공학 등을 전공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공학 기술 외에도 인문학적으로 생각하고,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 친구들에게 어울리는 직업이랍니다.

Q. 로봇을 만들어볼 수 있는 키트를 만져보고, 코딩 공부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키트는 로봇공학자의 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동작에 필요한 회전 모터, 당길 때 사용하는 직선 운동 기구 등을 직접 해볼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로봇을 접할 수 있는 곳에 가보세요. 전시관이나 박물관, 공항에 가보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안내하는 로봇들이 있을 텐데요. 이 로봇을 보면서 어떤 것을 잘하는지, 또 어떤 부분은 기대보다 못한지 생각하고 분석해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약 저 로봇을 개발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지 상상하면서 업그레이드해보고요. SF 영화와 소설을 읽으면서 실제로 개발된 로봇과 상상 속 로봇, 그리고 내가 만들 로봇을 비교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실생활에서 산업까지 로봇 관련 직업

**한때는 미래 공상 이야기에서나 볼 수 있었던 로봇.
이제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만나게 될
과학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더욱 주목받게 될
로봇 관련 직업을 소개합니다.**

지능로봇연구개발자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자기계발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전문가입니다. 지능로봇연구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뇌과학, 심리학,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등의 관련 학문을 공부해야 합니다. 대학원 이상 수준의 특화된 교육을 받아야 하지요. 지능로봇연구개발자는 로봇 관련 연구업체, 산업계 자동화 시스템 관련 업체 등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로봇공연기획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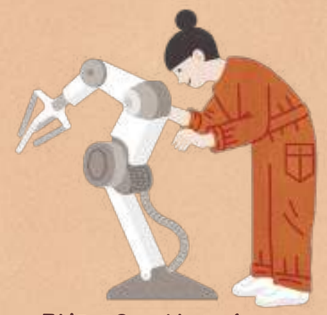
로봇드라마, 로봇뮤지컬, 로봇애니뮤지컬, 로봇쇼, 로봇격투대회, 로봇게임, 로봇연주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는 로봇엔터테인먼트의 기획자입니다. 기획하고, 제작, 수정, 현장 리허설, 실제 공연 등의 업무를 하는 직업입니다. 로봇공연기획자가 되기 위한 학과가 따로 있지는 않지만 문화예술적인 소양을 갖춘 이공계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련학과로는 애니메이션, 공연예술, 미디어아트, 컴퓨터공학, 로봇 관련 학과 등이 있습니다.

로봇컨설턴트

로봇 연구 기획과 개발부터 마케팅, 행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컨설팅하는 직업입니다. 로봇 개발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로봇 도입의 최적화를 위해 개발, 판매를 조율합니다. 관련학과로는 경영학, 로봇공학기술, 기계공학 등이 있습니다. 로봇 관련 기업에서 일하고 로봇컨설턴트 회사를 창업할 수도 있습니다.

로봇소프트웨어개발자

로봇하드웨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로봇 동작 환경과 패턴, 동작 등을 분석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직업입니다. 로봇의 개발 목적에 따라 다양한 센서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합니다. 로봇개발연구소, 로봇 관련 제품 생산 기업에서 활동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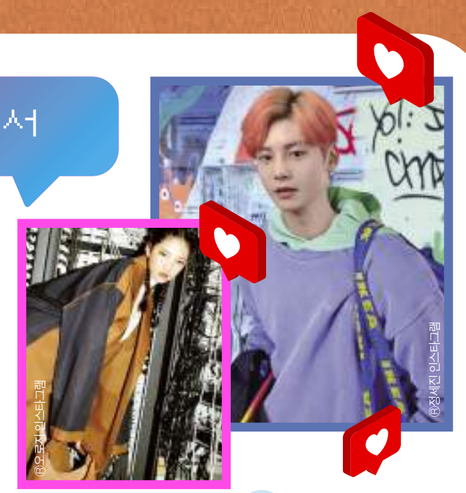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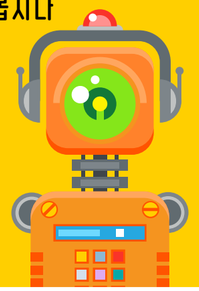
로봇하드웨어설계기술자

로봇의 자세와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동작 프로파일, 모션 제어 하드웨어 및 구조, 회로 등을 설계합니다. 로봇에 필요한 다양한 센서 신호를 분석해 동작 상태, 반응 상태, 누적 편차 등을 살피고 전기전자 부품, 하드웨어 부품 등을 통합해 로봇하드웨어를 제작합니다. 규격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평가하기도 합니다. 로봇 관련 연구소와 로봇 관련 기업에서 활동합니다.

디지털 아이돌 버추얼 인플루언서

최근 AI 기술을 적용해 가상 인물을 만든 뒤, 이들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버추얼 인플루언서'가 화제입니다. 이들은 SNS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친숙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모델이나 가수로 활동하기도 한답니다. 차은우를 닮은 꽃미남 아이돌 연습생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정세진, 광고 속에서 멋진 춤을 추며 눈도장을 찍은 오로지, VR게임의 주인공으로 출발해 이제는 연기, 음반 발매까지 활동을 넓혀가는 한유아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개발사나 소속사에서는 버추얼 인플루언서가 늙지 않는다는 점, 기획 의도에 따라 무궁무진한 연출이 가능하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줍니다. 기업에서는 이들을 미래지향적인 이미지와 신선한 느낌을 주는 모델로 평가합니다. 아직은 낯설고 신기하지만, 가상 인간이 우리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삶이 곧 찾아오지 않을까요?





경기도에서 만나는 로봇

로봇과 함께하는 생활을 곧 맞이할 우리. 실생활에서 로봇을 미리 만나볼 수는 없을까요? 경기도에서 로봇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을 소개합니다.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에는 경기도 내 뮤지엄 최초로 도입된 안내로봇 '오봇'이 있습니다. 2021년 새롭게 선보이는 관람객 서비스입니다. '오봇'은 전시장과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을 주로 안내합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발열 체크를 온 가족이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오봇'의 숨겨진 매력 중 하나는 음악에 맞춰 추는 댄스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인기 만점이라고 합니다. 박물관에 가면 만나는 '오봇'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평일 오후에 운영됩니다.

홈페이지 ngcm.ggcf.kr

부천 로보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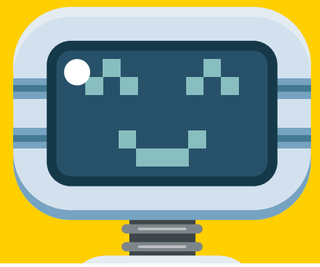
2005년 설립된 지능형로봇 전문과학관 상설전시장입니다. 3개 층에 850평 규모의 전시관에서는 부천시의 연구개발로 만들어진 100여 점의 신형 로봇을 보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로보파크 1층에는 안내 로봇 '로피'가 관람객을 맞이하고, 4D 영화관이 있습니다. 2층 전시관에는 로봇의 역사, 원리, 현황, 변화 과정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체험실에서는 댄서 로봇, 화가 로봇, 얼굴 로봇도 만날 수 있습니다. 3층은 로봇이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와 로봇물고기, 로봇 아카데미도 있습니다. 부천 로보파크에서는 매년 로봇경진대회와 로봇문화축제도 열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robopark.org

일산 국립암센터

일산 국립암센터에서는 진단검사의학과와 병리과 사이를 왕복하며 검체를 운반하는 서브로봇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검체나 약품을 시간에 관계없이 빠르고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어 직원들이 중요한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 관리자가 로봇관제시스템을 이용해 원격으로 로봇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사용 이력, 배송 스케줄 등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방문객을 위한 서비스는 아니지만 병원 복도를 오가며 당당한 병원의 일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서비스가 필요한 시기에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어 서브로봇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ncc.re.kr



경기도의 스마트한 미래

경기도의 로봇산업과 인공지능 정책

AI·로봇 교육체험 '미래채움센터' 개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6월 24일 경기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센터를 열었습니다. 경기SW미래채움센터는 총 200평 규모로 수원(광교)과 의정부 2곳에 강의실과 온라인 스튜디오, SW체험존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로봇·AI 등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으로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경기SW미래채움센터는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로봇, 3D 프린팅, VR·AR 등 4차 산업 미래 기술을 교육하고 체험하며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를 길러냅니다.

문의 경기SW미래채움센터 의정부 070-7775-4094, 수원 031-259-6154

고교 + 전문대 5년제 '경기 인공지능스쿨' 운영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한국IBM과 손잡고 경기 인공지능스쿨을 열었습니다. 고등학교 3년과 전문대 2년을 연계한 과정으로 인공지능(AI) 산업분야에 지역인재를 지원합니다. 통합 5년제로 운영되는 P-테크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버보안 분야의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에서 P-테크 5년의 관련 교육을 받고 졸업하면 협약 기업에서 유급 인턴십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 취업을 희망할 경우 서류전형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경기도 교육협력과 대학협력팀 031-8008-4814

다양한 자율주행 기반 교통서비스 미리 만난다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 7km 구간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어 무인셔틀, 로봇택시 등 다양한 자율주행 기반 교통서비스가 시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판교 제1테크노밸리 내에서는 수요·응답형 로봇택시 서비스(무인 콜택시)가 운행되고, 경기기업성장센터까지 순환셔틀이 서비스됩니다. 시행 첫해의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교통편의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문의 경기도 미래산업과 자율주행첨단단지팀 031-8008-5328

우리 학교를 소개합니다!

경기도 어린이 신문이
도내 초등학교의 다양한 소식을
기다립니다. 알리고 싶은
학교의 소식이나 행사가 있다면
아래 주소로 보내주세요!
wonwookim@gg.go.kr

학교와 마을을 위한 환경보호 '감일 플로깅'

3년째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체인지메이커 활동을 하고 있는 감일초등학교. 올해는 학부모회에서도 이에 동참하여 플로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플로깅이란 조깅을 하며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운동을 뜻합니다. 1학년을 시작으로 매월 2회 6개 학년이 1년에 두 번씩 활동할 계획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강준 감일초 5**

산의초 재미난 학습프로그램 4가지

우리 학교에는 행복나눔터 행사, 나무계단, 예그리나 축제, 물놀이 학습이 있습니다. 행복나눔터 행사에는 선생님께 보내는 감사편지 행사가 인상적입니다. 나무계단은 언제든 공연장으로 변신이 가능합니다. 예그리나 축제는 다양한 행사로 가득합니다. 마지막으로 물놀이 학습은 선생님과 학부모님이 풀장을 직접 관리하셔서 저학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줍니다. **조아인 산의초 5**

선택이 아닌 필수! 반려동물 등록제도

반려동물 등록제도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전국 시·군·구청에 반려동물을 등록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편 동물등록, 지금 바로 GO!

자진신고 기간 2021년 7월 19일 ~ 9월 30일
집중단속 기간 2021년 10월 1일 ~ 10월 31일

반려동물 등록, 왜 해야 할까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많아지는 만큼 유기동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도를 실시하면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중한 반려동물이 실종되는 사고를 당했을 때 동물등록번호를 통해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 방법은?

올해 2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신규 등록 시에는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삽입하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해야 합니다.
다만 고양이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집중단속에 포함되지 않아요.

※ **자진신고란?** 아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기간 내에 신고했을 때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 농림부는 2018년 1월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요. 단, 여러분이 거주하는 지자체가 사업 대상 지역이어야 등록이 가능해요.

영화 속 로봇의 의미 함께 생각해봐요

집의 청결을 책임지는 로봇 청소기부터 직접 음식을 가져다주는 식당의 서빙 로봇까지, 일상 속에서 로봇과 함께하는 순간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로 인해 전에 없던 새로운 궁금증도 생겨납니다. 만약 주인 말만 듣던 로봇이 스스로 원하는 것을 택하고 좋고 싫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로봇이 인간처럼 행동하게 된다면, 우리는 로봇과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영화 **<아이언 자이언트>**의 주인공 호거트는 이 질문에 긍정적인 답을 내립니다. 미국의 한 마을에 살던 호거트는 어느 날 숲에서 거대한 로봇과 마주칩니다. 로봇과 호거트는 오랜 시간 함께하며 서로를 소중한 친구로 여기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 로봇이 위험에 빠진 호거트를 구해주기도 합니다. 인간처럼 행동하고 감정을 느끼는 로봇을 두려워하며 도망칠 수도 있지만, 호거트처럼 마음을 열고 친구로 지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호거트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나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의 몸을 기계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사고로 팔 혹은 다리를 잃은 분들이 새로운 기계 팔, 기계 다리로 글을 쓰고 걷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도 생각해볼 수 있겠죠. 큰 사고를 당한 누군가가 몸의 90% 이상을 기계로 대체해야 한다면, 그 사람은 로봇일까요, 아니면 인간일까요?

영화 **<알리타: 배틀 엔젤>**의 알리타는 고철 더미에 버려진 사이보그였지만, 이도 박사의 도움으로 새로운 기계 신체를 얻게 됩니다. 알리타는 뇌를 제외한 몸의 모든 부분이 기계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전과 똑같이 친구들을 사귀고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며, 격투 스포츠인 '모터볼'도 훌륭하게 해냅니다. 이 경우, 알리타는 로봇과 인간 중 무엇으로 보는 것이 옳을까요?

영화 **<승리호>**에는 작은 나노봇으로 뇌신경을 대체해 살고 있는 꽃님이가 등장합니다. 꽃님이는 이 나노봇을 조종해 조직을 연결하고 죽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2092년의 오염된 지구에서 청소선인 '승리호'를 운행하던 선원들은 버려진 구조선에서 만난 꽃님이의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고민합니다. 알리타와 마찬가지로 꽃님이를 로봇과 인간 중 무엇으로 봐야 할지, 그리고 먼 미래에 나노봇 기술을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멋진 일을 해낼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조현나 씨네21 기자**

인류가 만든 감옥, 우주 쓰레기

우주에도 쓰레기가 있다고?

우주 쓰레기는 파괴된 인공위성의 잔해, 부서진 우주선의 파편, 우주 비행사가 떨어뜨린 공구나 부품 등을 말합니다. 현재 지구 공전 궤도에는 작동이 중지된 인공위성 약 2,600기, 컴퓨터 모니터보다 큰 물체 약 1만 개, 사과만 한 크기의 물체 약 2만 개, 구슬만 한 크기의 물체 약 50만 개, 너무 작아서 추적조차 할 수 없는 물체가 적어도 1억 개 이상 있다고 합니다. 지구의 궤도에 돌아다니는 우주 쓰레기는 우리가 생활하며 누리고 있는 많은 기반시설을 위협하고 있어, 이는 결국 인간이 스스로 만들고 있는 감옥인 셈입니다.

모두가 안전한 우주여행을 위해

각국의 우주기구와 기업들은 미래의 우주여행자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우주항공국(NASA)은 우주 쓰레기를 포획한 후 다시 갖고 돌아오는 소형 로봇을 연구 중입니다. 또, 거대한 레이저를 실은 인공위성을 쏘아, 그 레이저로 쓰레기를 불태우거나 궤도에서 밀어내는 방법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주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회수하는 기술이 곧 실현되면 가까운 미래에는 달이나 화성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 상상해볼까요? 가족, 그리고 친구와 함께 우주로 떠나는 멋진 휴가를!

사람의 일을 모두 로봇에게 맡겨도 될까요?

※소개한 답변은 경기도 어린이 신문 <내가 그린 꿈> 이벤트를 통해 선정된 의견입니다.

맡겨도 된다

조수정 빛가온초 4

로봇은 사람과 달리 지치지 않습니다. 또 무거운 물건도 쉽게 들 수 있고 주변 환경에 덜 구애받으며 주어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로봇이 사람 대신 일을 하는 동안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이나 더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어 좋습니다.

서지후 정천초 5

로봇은 사람이 만듭니다. 당연히 제어도 사람이 합니다. 로봇은 사람 대신 단순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라지는 직업도 있겠지만 반대로 관련된 일자리도 많아집니다. 로봇은 인간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이로운 점이 많습니다.

맡기면 안 된다

이종민 무봉초 4

단순노동과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에 로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모든 일을 로봇에게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일처럼 분명히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 사람만이 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로봇에게 모두 맡기면 재미도 없을 것 같습니다.

강예원 위례초 5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로봇이 모든 일을 해주니까 사람들은 로봇을 더 만들게 되고 여러 분야에서 사람 대신 로봇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로봇을 만들거나 이용하는 사람들만 돈을 벌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돈을 벌지 못합니다.

<내가 그린 꿈> 겨울호에 여러분의 생각을 뽐내주세요! 블로그(blog.naver.com/reporter_gg)에 게재된 생각 뽐내기 주제에 대해 논리적인 의견을 낸 어린이들은 겨울호에 소개되고, 문화상품권 1만원권도 드려요.

동시로 말해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관한 우리의 생각은?

일본 후쿠시마 도쿄전력에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2023년부터 바다에 방류하는 방안을 발표했어요. 이에 관해 경기도의 어린이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동시로 표현해보았어요.

모르는 척하지 말아요

왜 알면서 모른 척하나요.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면
언젠가 우리에게 올 위험을

사실은 알잖아요.
방사성 오염수가 돌고 돌아
이웃을 병들게 하는 것을
지구를 병들게 하는 것을

안전한 방사성 오염수 처리방법을
우리 함께 생각해봐요.

염지은 세류초 5

바다는 모두의 것입니다

바다는 누구의 것일까요?
바닷속을 헤엄치고 있는 수많은 물고기들의 것일까요?
바다는 누구의 것일까요?
바다 위를 자유로이 날아다니는 저 갈매기의 것일까요?
바다는 누구의 것일까요?
바다에서 도움을 받고도
바다를 더럽히고 있는 사람들의 것일까요?
초록빛 바닷물이 검게 물들게 내버려두지 마세요.
더 이상 쓰레기들 때문에 죽어가는
바다 생물들을 외면하지 마세요.
도와주세요. 바다는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모두의 것입니다.

김보경 남양주송라초 5

바다가 싫다고 한다

바다는 모든 물을 사양하지 않는다.
그렇게 흘러 흘러든 많은 물을
사양하지 않고 바다는 품는다.

하지만 바다는
원전 오염수를 사양한다.
바다는 자기가 품은
물을, 생명을, 사람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원전 오염수를 사양한다.

최여원 서현초 4

경기 촬영명소탐험대

경기도에는 유서 깊은 문화유적과 천혜의 자연,
골목이 아름다운 마을 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화, 드라마, 뮤직비디오 등의 촬영지로
사랑받고 있지요. 그동안 영상에서 보았던
경기도의 촬영명소는 어디인지 함께 탐험해볼까요?

출발!

옷솔이 막대 2개를 준비해요.
단적서 볼록한 등과 평평한 배가 하나씩
나오면 1군, 둘 다 평평한 배면 2군,
둘 다 볼록한 등이 나오면 3군씩 짝지해요.
목적지에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승리!

양평
경기미래교육 양평캠퍼스

자랑스러운 세계 속 아이돌 BTS의 <호르몬 전쟁> 뮤직비디오를 촬영한 곳. 드라마 <모범택사>를 촬영하기도 했다. 아름다운 양평의 환경을 이용한 친환경적 리조트형 캠퍼스다.

안성
안성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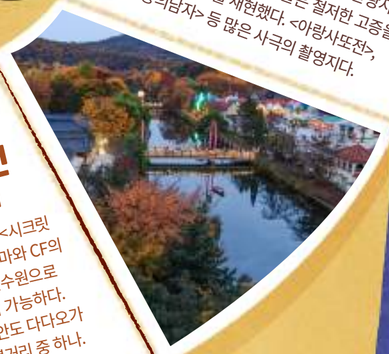
넓고 푸른 초원 위에 양철로 만든 건물이 멋들어진 곳이다. 안성의 일출과 일몰의 명소이기도 한 안성목장에서는 드라마 <빠담빠담>을 촬영했다.

앞으로 두 칸

내가 시청한 최고의 드라마나
영화 제목 하나 말해주세요.

여주
마임비전 빌리지

<마인>, <빈센조>, <시크릿 가든> 등 많은 드라마와 CF의 촬영지다. 기업연수원으로 일반인도 관람이 가능하다.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교회도 볼거리 중 하나.



뒤로 한 칸

내가 방문한 경기도 내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를 말하세요.
있으면 멈춤, 없으면 뒤로 한 칸.

용인
한국민속촌

1974년 조성된 최고의 한국 전통문화 관광지다. 한국민속촌의 조선시대 마을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생활문화를 재현했다. <아랑사또전>, <왕의남자> 등 많은 사극의 촬영지다.

파주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포르투갈 건축가 알바로 시자가 설계한 건축물이다. 개관 전부터 해외 매체에 소개될 정도로 유명한 파주출판도시의 랜드마크다. 엑소 백현의 뮤직비디오 <UN Village>를 촬영했다.

구리
고구려 대장간마을

고구려 철기 문화를 관람할 수 있는 유적 테마공원이다. 아차산고구려유적전시관과 야외전시관이 있다. <태왕사신기>, <달이 뜨는 강>, <신의>를 촬영했다.

수원
화성행궁

왕이 궁궐을 떠났을 때 머무는 곳 행궁. 정조의 수원 천도 꿈의 중심이었다. 한국의 행궁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아름다운 곳으로 꼽힌다. <전우치>, <해를 품은 달>을 촬영했다

시작점으로 돌아가기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탐험을 시작합니다.

포천
비둘기낭폭포

포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곳. 현무암이 만들어낸 주상절리와 거대한 협곡이 감탄을 자아낸다. 천연기념물 제537호다. <늑대소년>, <선덕여왕>, <괜찮아 사랑이야> 촬영지다.

ⓒ한국관광공사

돌발퀴즈

조선 후기 최고의 개혁 군주라
칭하는 왕은 누구일까요?
(힌트) 화성행궁을 건설했고 영조의 손자.

안성
미리내성지

한국 천주교회에서 가장 유서 깊은 성지다. 한국 최초의 사제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묘소와 경당이 있다. 풍경이 아름다워 산책하기 좋은 장소. <도깨비>의 촬영지로 유명하다.

오산
드라마세트장

오산시 관광테마파크 부지에 <아스달 연대기>를 위해 세운 세트장으로 6600평의 큰 규모를 자랑한다. <더킹>의 세트장도 함께 관람할 수 있다.

뒤로 두 칸

가보고 싶은 경기도 촬영지 세 곳
말하기(10초). 성공하면 멈춤,
실패하면 뒤로 두 칸.

화성
전곡항

전국 최초 레저어항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곳 전곡항. 항구 가득 정박한 요트가 이국적인 풍경을 선사하며 요트체험 프로그램도 가능하다. <호텔 델루나>, <럭키>를 촬영했다.

과천
서울대공원

서울대공원은 동물원, 식물원, 테마가든, 치유의 숲, 캠핑장 등이 갖춰진 종합 테마파크다. 아시아 동물원 최초로 국제기준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미술관 옆 동물원>의 촬영지로 근처 국립현대미술관도 함께 들러보자.

도착!

경기도 촬영명소탐험대와
함께 만나본 장소들
재미있었나요?
인상 깊은 곳을 꼽아보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소개해주세요.

ⓒ경기관광공사

NIE
Newspaper In Education

NIE란?
신문 활용 교육(Newspaper In Education)의 약자로 뉴스를 보며 논리성과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활동을 뜻합니다.

주제 **〈인어공주〉, 〈백설공주〉 실사 영화 주인공에 유색인종이 캐스팅되었습니다.**

1 원작과 다른 주인공
두 실사 영화의 원작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은 모두 백인입니다.
이번 유색인종 캐스팅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2 인종차별과 역차별
원작 캐릭터를 부정하는 것은
백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역차별 의견이 있습니다.
차별과 역차별에 대한 의견을 적어보아요.

3 인종차별 캠페인
디즈니는 지속적으로 인종차별 반대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나만의 캠페인 아이디어를 적어보아요.

4 모두가 평등한 세상
차별은 우리 생활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조선일보 기사 중 발췌

'흑인 인어공주' 등장의 의미

2019년 7월 월트 디즈니가 제작하는 〈인어공주〉 실사 영화 주인공 '아리엘' 역으로 흑인 배우 할리 베일리가 캐스팅되었다는 소식으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인종 다양성을 위한 노력은 존중하지만 원작 애니메이션 주인공 이미지와 차이가 크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미국의 저명 동화·신화 전문가인 매들린 밀러는 '인어공주'의 경우를 포함한 디즈니의 흑인 배우 기용은 "백인뿐만 아니라 흑인, 라틴계, 아시아계 등 다양한 인종의 차세대 어린 소녀들에게 '행복한 결말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준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파이낸셜 뉴스 기사 중 발췌

영화 <백설공주> 주인공으로 라틴계 발탁

디즈니가 실사 영화로 제작하는 〈백설공주〉의 주인공으로 라틴계 레이철 제글러가 발탁되었습니다. 라틴계 제글러의 캐스팅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설공주가 '눈처럼 하얀 피부' 때문에 '백설'이라는 이름이 붙은 만큼 이와 다소 거리가 있는 라틴계 배우가 백설공주 역할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제글러의 캐스팅과 관련해 영화 〈백설공주〉의 마크 웹 감독은 "제글러의 용기와 지성, 낙천주의는 고전 디즈니 동화에서 기쁨을 재발견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부색이 아닌 인성에 중점을 두고 캐스팅했음을 시사했습니다.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인식하면
전체 기사를 확인할 수 있어요!

배경지식 1

애니메이션 속 인종차별

〈피터팬〉은 인디언을 '레드 스킨'으로 비하합니다. 〈아기 코끼리 덤보〉에는 남부 농장의 흑인 노예를 모방하며 조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리스토캣〉에 등장하는 '아시안 고양이'는 눈이 찢어지고 이빨이 빠진 우스꽝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어 인종차별적 묘사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디즈니의 영상 스트리밍 자회사인 디즈니플러스는 인종차별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지적받은 애니메이션에 7세 이하 어린이 시청 금지와 인종차별 경고 문구를 부착했습니다.

배경지식 2

역차별과 불평등

차별받기 쉬운 위치에 놓여 있는 소수의 권리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 우대 조치를 취한 것이 도리어 새로운 불평등을 낳게 되는 현상을 역차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흑인과 히스패닉에게 대학 입학이나 공무직 고용 시 혜택을 주고 있는데, 미국 사회에서는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정치권에서의 여성 할당제, 지역 할당제, 특정 분야 가산점 등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역차별 논쟁이 끊이지 않는 주제입니다.

우리 가족 소울푸드를 소개합니다

기쁠 때, 슬플 때, 온 가족이 다 모였을 때 이 음식 하나면 끝!
초등학생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초간단 요리 비법을 공유할게요.

푸짐한 닭칼국수 이다은 호연초 4

우리 가족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바로 닭칼국수입니다. 만들기가 너무 간단해서 캠핑을 가서도 자주 해 먹는 우리 집만의 소울푸드입니다. 한번 만들면 양이 푸짐하기 때문에 온 가족이 먹기에도 좋고요. 어른들은 취향대로 매운 고추를 넣기도 합니다. 채소는 손질할 때 크게 썰어서 넣으면 씹는 맛이 일품입니다.

재료 자른 닭, 감자 3알, 당근 반 개, 양파 반 개, 파, 간 마늘, 치킨스톡, 칼국수면

① 끓는 물에 감자, 당근, 자른 닭을 넣는다.
② 치킨스톡을 넣고 간 마늘을 넣는다.
③ 양파, 파를 넣고 끓인다.
④ 고기를 건져 먹다가 남은 육수에 칼국수를 넣어서 끓여 먹는다.

식빵 과일 생크림 케이크 김수현 나곡초 6

우리 가족은 기쁜 일이 있을 때면 빼먹지 않고 항상 달콤한 과일 생크림 케이크를 먹어요. 가족들이 단 음식을 좋아하기도 하고, 달콤한 음식을 먹으면 기분도 더 좋아지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비싼 과일 생크림 케이크를 매번 사기엔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으면서 가격도 저렴한 식빵을 이용한 과일 생크림 케이크를 자주 만들어 먹는답니다.

재료 식빵 4쪽, 꿀, 시판용 휘핑크림 100ml, 제철과일

① 식빵 한 쪽을 큰 접시에 준비한다.
② 휘핑크림에 꿀 적당량을 넣은 후 휘핑기로 저어 풍성한 생크림을 만든다.
③ 준비한 식빵에 생크림을 바른 다음 과일을 올려준다.
④ 이런 식으로 식빵, 생크림, 과일을 계속 얹어 케이크처럼 층을 만든다.

그림 뽐내기

이번호 '로봇'을 주제로 한 그림 뽐내기가 지난 8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어린이 신문 <내가 그린 꿈> 블로그에서 진행됐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표지 후보작들을 소개합니다. 겨울호 그림 뽐내기에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풍요로운 시골풍경
임가인 유현초 4

허수아비로봇의 가을
이하섬 중탑초 5

신문 읽는 AI
이예지 왕배초 6

학교에 적응하는 나만의 방법

방학이 끝나는 것은 아쉽지만 개학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방학과는 다른 생활에 적응하는 나만의 방법이 있나요? 친구들의 학교 적응기를 소개합니다.

일찍 일어나기 연습

박선희 내혜홀초 5

개학 1주일 전부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잠자기 한 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조명도 끄고 잠에만 집중할 수 있게 했습니다. 따뜻한 우유도 한 잔 마시고요. 일찍 일어나는 첫날은 적응하기 힘들지만 계속 반복하면 개학해도 무리 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돌봄학교 다니기

박성빈 단대초 5

방학 때 학교 돌봄을 다녔어요. 돌봄을 다니면 늦잠 자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니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학교 도서관에서 자율적으로 공부하고 점심에 집에 왔어요. 방학인데도 늦잠을 자지 못해 투덜거렸지만 개학 후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보니 돌봄 다닌 것이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한예원 내동초 6

저학년 때를 생각해보면 서두르다 실수한 일이 많았습니다. 헐레벌떡 준비하다가 실내화 주머니를 집에 놓고 온 일, 학교에서 나눠준 가정통신문을 서랍에 넣고 안 가져온 날 등. 6학년이 되고서는 시간이 걸려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거북이처럼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자는 마음으로 학교에 적응하는 것이 저의 마음가짐입니다. 결승점은 천천히도 갈 수 있으니까요.

내가 먼저 인사하기

강윤성 정평초 5

방학이 끝나면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를 합니다.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가야 하는데 새 친구들에게도 먼저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온라인 수업을 하며 관심이 생긴 친구에게 "안녕? 너의 취미는 뭐야?" 하며 다가갈 겁니다. 학교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먼저 다가가기 부끄럽지만 친해지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꿈 그린 편지

<내가 그린 꿈> 여름호를 읽고 독자 여러분이 보내준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우리집 댕댕이와 냥냥이 시원한 여름나기'가 가장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꿀팁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름에 강아지가 신발 신는 거 싫어할 텐데 신기는 법도 좋았습니다.
문서율 한율초 5

여행 관련 정보는 실제로 여행 계획을 잡을 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경기도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려주셔서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소개해주셔서 즐겁게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구지현 교사

<나의 미래 직업 알아보기>에서 여행 관련 직업을 다양하게 알려주신 게 좋았어요. 그저 여행가, 여행작가, 여행 유튜버만 생각했는데 공정여행 기획자나 여행 상품 개발자도 있네요. 여행 상품을 개발한다는 건 여행한다는 것과는 또 다른 관점일 텐데, 이것에 대해 아이와 대화를 하니 "일단 여행을 많이 다녀봐야 하잖아?" 하더라고요. 특히 성장여행 기획자라는 것도 흥미로웠어요.
이미연 학부모

아스라한 추억을 그려가는 곳, 간이역

경기도에는 셔터만 눌러도 인생사진을 건질 수 있는 예쁜 간이역과 폐역이 제법 있지요.
기찻길을 따라가며 켜켜이 쌓인 이야기가 있는 곳, 간이역을 만나러 갑니다.

남양주 능내역

1965년 간이역으로 시작한 능내역. 역무원이 있는 역으로 승격했다가 2008년 폐역이 되었습니다. 강을 따라가며 펼쳐진 경치가 좋은 곳으로 자전거도로가 생기며 라이더들의 주요 코스가 되었고 수도권 관광지로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능내역사는 옛 모습을 담은 사진 전시관으로 변모했고, 역 앞에 놓인 작은 나무 의자들과 빨간 우체통, 승강장 일부에 남은 철길은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양평 구둔역

1940년대에 건립된 구둔역은 중앙선 철도 노선이 변경되면서 폐역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후 사라질 위험에 처한 적도 있었지만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등록문화재 제296호가 되면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영화 <건축학개론>과 아이유의 <꽃갈피 둘> 앨범 재킷을 촬영하면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역사 정면에 오래된 느티나무가 구둔역과 함께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산 벽제역

시간이 머무른 오래된 철로가 주는 느낌이 잘 살아 있는 벽제역. 넓은 선로에 합쳐지고 갈라지는 철길이 역사를 말해줍니다. 인근에 있는 방현객 터널은 밝은 낮에도 터널의 어둠을 이용해 다양한 사진을 찍을 수 있어 경기도에서 촬영 포인트로 유명한 곳입니다. 역사는 운영하지 않지만 화물선이 가끔 다니고 있어 지금은 철길 통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이역과 오래된 철길의 풍경은 마음을 움직이기 충분합니다.

양주 일영역

BTS의 노래 <봄날> 뮤직비디오 촬영지로 최근 유명세를 타고 있는 역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아미들도 가보고 싶은 곳으로 꼽는다고 합니다. 교외선 중 유일한 유인 역으로 2004년부터 열차가 다니지 않지만 열차 교행 등 업무 처리를 위해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한쪽에 자리한 낡은 광장대합실은 과거의 모습을 대변하는 듯 정겨워 보입니다.

경기도 문화예술 소식

경기도어린이박물관 틈새 전시
우리들의 박물관

미디어아트 작가 그룹 '에브리웨어'의 <메모아 2021(Memoirs 2021)>을 통해 관람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전시를 마련했다. 관람객이 카메라를 응시하면 특정 순간의 모습이 촬영되고, 관람객은 TV 화면에서 자신의 사진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날짜 2021년 7월 30일~12월 19일
장소 경기도어린이박물관 1층 틈새전시실
홈페이지 gcm.ggcf.kr

반구대 암각화 발견 50주년 기념 교류전
반구대 암각화: 고래

우리나라 최초의 회화 작품인 선사시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국보 제285호) 발견 5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로 암각화의 신비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황성동 유적에서 출토된 고래뼈, 작살 맞은 고래뼈(복원품) 등을 전시할 예정이다.
날짜 2021년 8월 31일~10월 24일
장소 전곡선사박물관 PH-x 아트섹션
홈페이지 jgpm.ggcf.kr

경기상상캠퍼스 문화축제 리틀포레
빅게임, 숲속의 비밀

경기상상캠퍼스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 미션을 해결하는 롤 플레잉 게임 빅게임! 경기상상캠퍼스 전역에 숨겨진 암호를 해독하고 다섯 가지 미션을 해결해 상상의 씨앗을 찾자. 소규모 인원으로 경기상상캠퍼스의 숲과 건물, 시설물 구석구석을 투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
날짜 2021년 10월 24일, 10월 30일, 10월 31일
장소 경기상상캠퍼스
홈페이지 sscampus.kr

학생이 주도하는 교육
경기도교육청 이야기

QR코드를 스캔하면
2021 학교민주주의 지수 조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학교민주주의 지수 2.0'으로 학교자치 도약

경기도교육청이 '학교민주주의 지수 2.0'을 활용해 조직문화 진단을 시작한다. '학교민주주의 지수 2.0'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스스로 학교 민주주의 문화를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목적이다. 2015년 도교육청이 개발한 진단 도구를 올해부터 개선해 적용한다. 2021 학교민주주의 지수 조사는 11월 5일까지 도내 유초중고특수 2575개 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총 70여만 명이 온라인시스템에 접속해 진행한다. 각 학교는 12월 초에 온라인시스템에서 학교별 2021 민주주의지수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초등학생도 참여 가능한 '학생북(BOOK)치기' 운영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이 주도하는 책 읽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경기학생북(BOOK)치기' 활동을 학교에 안내했다. '경기학생북(BOOK)치기'는 학생이 관심 있거나 감명 깊게 읽은 책 추천 영상을 직접 제작해 공유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책을 추천하는 활동이다. 성남중학교, 낙원중학교, 한백고등학교 학생들의 책 추천을 시작으로 대평중학교, 양평중학교, 이현고등학교 학생들이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며 초등학생도 참여 가능하다. 경기학생북(BOOK)치기 유튜브 채널도 운영한다. 채널에는 경기학생북(BOOK)치기 정책홍보 애니메이션, 학생들이 제작한 북트레일러, 북캐스트 제작 과정 브이로그, 북캐스트 영상 등을 볼 수 있다.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
경기도의회 이야기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경기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소관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시·군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지원, 아동의 권리가 폭넓게 보장되고 아동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제안됐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산하 아동구호기관인 유니세프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인증하는 것이다. 경기도에서는 오산, 수원, 광명, 화성, 시흥, 부천, 용인 등 7개 도시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아동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 아동친화영향평가,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전문 인력과 재정지원 등을 담고 있다.

깜짝퀴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법인 □□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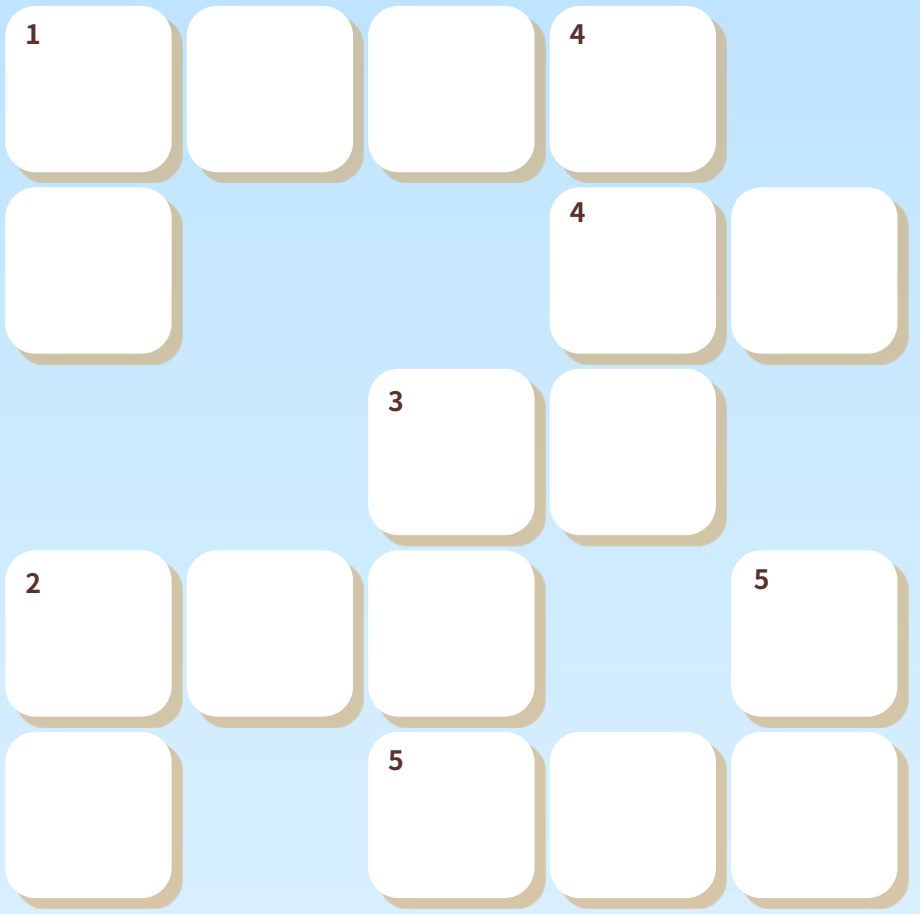
힌트 QR코드를 스캔하여 경기도 어린이의회 누리집을 참고해보세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경기도 어린이 신문 <내가 그린 꿈> 블로그(blog.naver.com/reporter_gg)에 10월 15일까지 응모해주세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6명에게 문화상품권 1만원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경기도의회 누리집

함께 풀어봐요

가로세로 낱말풀이 정답을 경기도 어린이 신문 <내가 그린 꿈> 블로그(blog.naver.com/reporter_gg)에 10월 15일까지 올려주세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문화상품권 1만원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가로열쇠

1 인간의 지능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
2 5일에 한 번씩 열리는 시장.
3 올림픽 경기장에 켜놓는 횃불. ○○봉송의 시작은 올림피아 신전이다.
4 다른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사정을 알리는 말이나 글.
5 학교에 가기 위해 지나는 길.

세로열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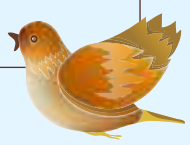
1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 권리.
2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에 있는 안내 로봇 이름.
3 성장기 때 키가 자라면서 느끼는 통증.
4 넝쿨식물로 여름에 피는 깔때기 모양의 주황색 꽃. 양반집 마당에만 심을 수 있어 양반꽃이라는 별명이 있다. 금등화라고 부르기도 한다.
5 옆으로 나 있는 길이. ○○세로 낱말풀이.

겨울호 주제는 내가 정해볼까?

경기도 어린이 신문 <내가 그린 꿈>은 어린이들과 함께 만드는 신문입니다. 신문 기획과 제작에 참여하고 싶다면 <내가 그린 꿈> 블로그(blog.naver.com/reporter_gg)에서 진행되는 편집회의 및 이벤트 공지를 주목해주세요. 관내 초등학교에 다니는 4~6학년 어린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가을호 편집회의에 참여해 멋진 의견을 내준 어린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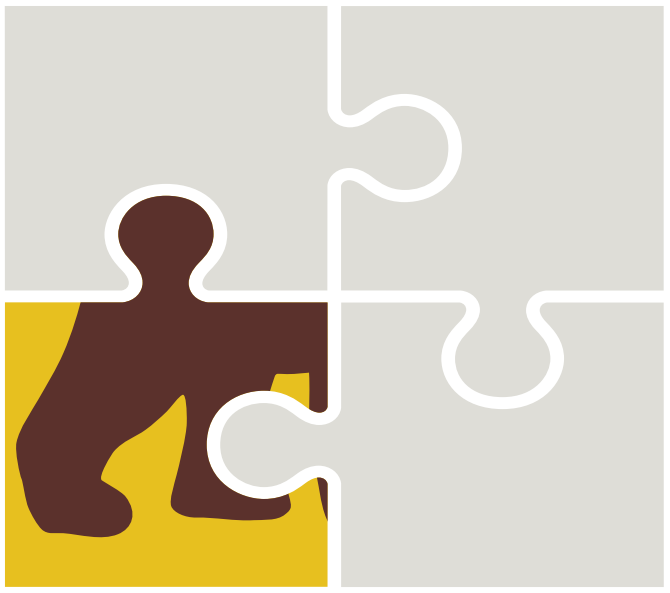
가을호 편집회의 참여 인원

염지은 세류초 5, **김보경** 남양주송라초 5, **김도현** 산운초 5
강윤성 정평초 5, **남가현** 운정초 5



Event
그림 맞추기

<내가 그린 꿈> 봄호부터 겨울호에 걸쳐 '그림 맞추기 이벤트'를 진행해요. 조각을 오려서 보관해주세요! 12월 중 응모 이벤트에서 그림 조각을 모두 모은 분께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릴 예정이에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FSC FSC® A000523
경기도 어린이 신문 〈내가 그린 꿈〉은 친환경용지를 사용합니다.

발행일 2021년 10월 1일 | **발행처** 경기도 | **발행인** 경기도지사 이재명 | **편집인** 홍보기획관 이성호 | **발행 부서** 홍보미디어담당관 | **담당관** 박연경 | **미디어운영팀장** 강경아 | **주무관** 김원우
편집·디자인 (주)모두커뮤니케이션즈 | **표지 그림** 김다은 용인백현초 6 | **문의** 031-8008-2731